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곤(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통신교리 - 전화문의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환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자선주일

정체를 드러낸 천사 라파엘은 토빗과 그의 아들 토비아에게 말했습니다. (토빗 12.8)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제 1독서] 이사61,1-2ㄱ,10-11
 [화답송] 루카1,46-48,49-50,53-54(이사61,10ㄱ 참조)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 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 굵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

[제 2독서] 1대살5,16-24
 [복음 환호송] 이사61,1참조(루카4,18인용)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복음] 요한1,6-8,19-28

성가	8시 미사	입당 93	봉헌 210 219	성체 152 160	파견 92
	11시 미사	입당 93	봉헌 210 219	성체 152 160	파견 92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대림 제 4주일(12월 21일)		성탄 전야 밤미사(12월 24일)	성탄 미사(12월 25일)
	8시미사	교중미사	밤 8시	오전 11시
미사해설	정애리스텔라	4구역:권창모미카엘	김순희 글라라	임승원루카
제 1 독서	정일환프란치스코	4구역:허순구라우렌시오	강신호 요한	채성일토마스
제 2 독서	정영희글라라	4구역:허욱진파비올라	김영선 안젤라	정애리스텔라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구분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12월 28일)		송년미사(12월 31일)	천주의성모마리아대축일(1월 1일)
	8시미사	교중미사	저녁 8시	오전 11시
미사해설	김휘안토니오	뜨락회	전진영베로니카	조선덕레지나
제 1 독서	채성일토마스	뜨락회	심태규미카엘	이창용레이몬드
제 2 독서	정애리스텔라	뜨락회	-	이경란베로니카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기다림....

대림 4주입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나가고 성탄을 준비합니다. 대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희망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기에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고, 희망이 있기에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약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천사는 하느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 약속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약속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희망의 시작이 되고 희망은 우리를 하느님에게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기억과 희망입니다. 성모님께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고백을 하십니다. 약속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기에 기다리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기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다림의 끝에 있는 기쁨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희망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약속을. 그래야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1993년 10월 10일, 1994년 10월 21일, 1995년 6월 29일, 1999년 6월 30일, 2003년 2월 18일, 2014년 4월 16일을..... 대한민국의 희망이 사라졌던 날들을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약속을 할 수 없고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약속을 지금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슬픈 현실들이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 기다림의 끝에 기쁨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 1993년 10월 10일 서해 웨리호 침몰사고
-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 1995년 6월 29일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
- 1999년 6월 30일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21명 실종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명 조은화, 허다운,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고창석,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이홍일 토마스 신부
인천교구 도창동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제1594호 대림 제 3주일 2014년 12월 14일
 성탄맞이 성당 대청소 구역나눔

구역	반	청소 담당 지역
1 구역	오클랜드반	교육관 1, 2층
	실버반	성체조배실 및 제 2 회의실(대건회관)
	알라메다반	대건회관 정원 및 제 1 회의실
	샌리엔드로반	야외 성모상과 성김대건 동상 주변 정원
2 구역	프리몬트반	친교실 및 무대
	유니온반	친교실 화장실(남/여)
	헤이워드반	제의실 및 통로
	캐스트로밸리반	주차장
3 구역	예전 8-1구역	교육관 정문 밖 주변
	예전 8-2구역	유아실 두 군데 및 통로
4 구역	예전 9구역	성당 내부 1, 2층
	예전 10구역	교육관 정원
뜨락구역	뜨락회	친교실 밖 통로 및 주방



당신 영혼의 외투가 저의 영혼을 감쌉니다.
 그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도 있어 본 적 없는
 그런 껴안음으로.

글_카푸친회 수사 빼이라노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간절한 기도

제가 진심을 다해 기도했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소위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2004년, 제 인생 가장 최악의 터블런스(비행기 난기류)를 경험했습니다.

러시아를 지나 일본쯤 왔을 때, 갑자기 비행기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난기류에 휘말렸습니다. 기내는 공포에 휩싸였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겁에 질린 제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이때도 받을 돈은 아내에게 다 이야기하고, 줄 돈은 몇 개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30분이 넘는 난기류를 경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승무원에게 물어보니 10분이 채 안 된 시간이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모시고, 성당도 잘 다니고, 봉사와 희생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 테니, 제발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때만큼 간절하고 진심을 다해 기도를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론 가족과 동료들에게 사랑한다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한줄기 눈물이 흘렀고, 진심으로 드린 기도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난기류는 곧 지나갔고 기내는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후 전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했던 제가 무사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담배를 빼어 물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야, 나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 막걸리 한잔 하자.” 하면서 말입니다.

불과 두 시간 전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했던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당장의 흡연, 음주욕에 가득 찬 한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

다.

요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항상 내가 아플 때, 아니면 위기나 위험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개봉을 앞두고 있을 때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까? 그리고 정작 간절히 내가 기원하고 갈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졌거나, 그 위험에서 벗어났을 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까?’ 하고 말입니다.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심도 두터운 제 아내가 저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청원의 기도를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 고 말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같이 시작하는 신앙인들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또다시 아내의 충고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다음 영화 좀 제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원동연 제네시오
리얼라이즈픽처스(주) 대표

요한 서간

사랑을 통한 하느님 체험

요한 서간은 요한복음과 비슷한 주제를 다룹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 (영원한) 생명 그리고 사랑을 통해 두 작품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 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1요한 1,1)

요한의 첫째 서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요한 서간은 ‘생명의 말씀’을 주제로 삼으며 그것이 체험 가능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 (1요한 1,5)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이들은 생명의 빛 안에서 나누는 친교를 통해 구원을 향해 갑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1요한 2,5-6)

요한 서간에서 ‘사랑’ 또는 ‘사랑한다’는 표현은 마흔 번 이상 사용되었을 정도로 요한 서간은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는 하느님의 빛 속에서 사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1요한 3,14)

사랑하라고 말하는 요한 서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1요한 4,1; 2요한 7)

그들은 예수님의 육화를, 곧 예수님의 인성(人性)을 거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형제적인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과는 상종하지 말

라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2요한 10-11)

당시 요한의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피해가 꽤 컸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 여러분, 우상을 조심하십시오.” (1요한 5,21)라는 첫째 서간의 마지막 당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랑은 단순히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 서간은 한 마디로 ‘사랑의 편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고,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 서간이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허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12월21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김말따	정베드로/아가다
	연	김방지거/가브리엘/조상님	김데레사(정복)
	연	김라파엘/형제들	김데레사(정복)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김원자	김프란치스코(범식)
	연	전창민	찬미성가대
	생	본당신부님	김프란치스코/마리안나
	생	박스테파노/실비아가정	박데레사
	생	양마르코/수산나가정	박데레사
	생	이요셉/세레나가정	박데레사
	생	심데레사(연자)	강루시아
	생	김마리아(옥자)	임루시아
	생	김마리아(옥자)	김유릿다(정희)
	생	우리가정을위하여	조안셀모(승훈)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크리스토퍼오쿠모토생일	신엘리사벳
12월23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김베로니카(혜자)	김케네스가정
	생	크리스토퍼오쿠모토생일	신미카엘라
12월27일 토	생	2014년모든것감사	성령기도회
	생	김요한신부님축일	김카타리나
	생	진파비올라(소연)생일	영파트리샤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미사참석인원	81	229	31	341
헌 금	\$493	\$1,578	\$31	\$2,102

< 교무금 > \$4,685

정기환(1-4/2015) 배영옥(7-12) 유춘성(11-12)
 유경돈(11-12) 부건화(11-12) 조우송(1/2015)
 김정복(12) 김순이(12) 배점마(11-12) 송인환(12)
 강성순(11-12) 최옥경(12, 1-2/2015) 조병국(12)
 이영길(11-12) 이영기(11-12) 김정탁(11-12)
 김광석(12) 허석진(10-12) 박일신(12) 최상철(12)
 엄철기(9-12) 이윤자(8-11) 지영남(7-12)

< 성소후원금 > \$50

김정복(12) 김순이(12) 조병국(12) 박일신(12)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김순이 \$200 최옥경 \$50

< 대림초/꽃봉헌 >

김순이 \$100 이종규 \$500 유춘성 \$100

~~~~ 오늘 간식은 한치용 요셉/헬레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성탄 및 송년 전례 안내

- 12월 24일(수) 저녁 8시 성탄 성야 미사  
\* 영세식이 있습니다.
- 12월 25일(목) 오전 11시 성탄 미사
- 12월 31일(수) 저녁 8시 송년 감사 미사
- 1월 1일(목)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의무축일입니다.\*
- \* 24일, 31일 수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세례를 축하합니다. ♪♪♪  
 오클랜드반 : 김영균 라파엘  
 캐스트로밸리E반 : 이은자 마트로나  
 월넛크릭반 : 박지선 라파엘라

◆ 2015년 교무금 약정서가 주보 안에 있습니다.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성탄맞이 대청소 : 오늘 구역별 대청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쪽을 참고하십시오.

◆ 대림절 성경 쓰기 : 요한복음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성탄 판공성사  
매 미사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대림초/성탄 제대꽃 봉헌을 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성탄 잔치  
 일시 : 12월 25일(목) 11시 미사 후  
 내용 : 개인이나 가정별 노래/장기자랑  
 신청 : 각 반장님들께 신청해 주십시오.  
 \* 경품추첨에 사용될 선물(\$20 상당)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성탄트리 밑에 놓아주세요.)  
 \* 당일 판매하는 라플 판매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 대부모/대자녀 만남의 날  
 일시 : 1월 11일 주님세례축일 교중미사 후  
 내용 : 대자녀들께서 세례대부모를 초대  
 신청 및 문의 :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신청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12월, 1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구역반장회의 : 12월 28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북가주 청소년 대회

일시 : 2015년 1월 3일 오전 8:30 ~ 오후 7:30  
 장소 : 산호세 성당  
 참가대상 : Youth(8~12학년) & Young Adults(나이제한 없음)  
 참가비 : \$30  
 참가신청 : <http://www.koreancatholicyouthday.org/>  
 문의 : 김민규 바오로 925-698-9270  
 minkyukim1027@gmail.com

\* 신청서와 참가비는 성당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체장들은 2014년도 결산서와 행사보고서 및 2015년도 예산서를 총무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및 제출 : 사목회 총무 510-292-5815  
 ygandrew55@gmail.com

◆ 각 단체장들은 2014년도 회계장부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의 및 제출 : 장찬호 안드레아 510-357-5669

◆ 성물방 대림 20% Sale  
 성물방에서 대림시기를 맞아 도서/성물을 20% 할인 판매합니다.

◆ 2015년 떡(간식) 신청 받습니다.  
 한 가정이 하면 \$300, 두 가정이 같이 하면 \$150씩  
 문의 : 성모회장 장희숙 루시아 510-372-7111  
 \* 2014년에 간식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다음주 28일은 은행 휴무입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스테파노(12/26) : 김영길, 장진혁, 김흥기, 김용재
- \* 사도요한(12/27) : 지영남, 이세호, 윤성일, 한일청

안국학교 소식

- 12월 13, 20, 27 : 겨울방학
- 2015년 1월 3일 : 개학